고창종합테마파크 건립 본격화… '머무는 관광' 숙원 해결

민간사업 우선협상자에 용평리조트 선정…2025년 착공
3500억 대규모 민간투자…일자리 창출·상권 형성 기대

고창 관광산업의 체질변화까지 획기적 발전동력으로 평가받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용평리조트가 선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용평리조트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됐고 이어진 사업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검토·평가를 통해 (주)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9월 고창군과 우선협상 대상자 간의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총사업비 3500억원이라는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작될 전망이다.

군은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의 양자협약 체결 이후 지난달에는 전북도까지 포함한 3자 투자협약을 맺었다.

용평리조트는 앞으로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 사업에 착공하고 2028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서해안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및 레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숙박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그간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규모 관광객 및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창군으로서는 '머물러 가는 관광지 조성'이란 숙원사업까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돼 고창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과정에 있어 각종 사전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

전국 청년 크리에이터들 '고창 매력찾기'

5개팀 '한달살이' 프로그램 입소
명소·농촌체험 후기 SNS 업로드
청년 창업·군 관련 정책 소개도

고창군의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입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매력찾기'에 나선 전국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고창 한달살이'가 시작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 크리에이터, 고창 한달살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전국의 청년 크리에이터 5개팀의 입소식이 전날 뚜라조각공원에서 열렸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고창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직접 경험한 고창의 관광명소, 문화행사, 농촌체험 후기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게 된다.

이들은 현지인들만 아는 관광 명소와 맛집을 찾아 고창의 숨은 매력을 느끼고 요가와 산책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찾고 한편으론 고창의 숨은 매력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또 고창으로의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의 여건과 군의 관련 정책들도 소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사인 유한회사 코스모팜 오세훈 이사는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고창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청년의 삶을 자유롭게 체험해 타 지역 청년들에게 고창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하수도요금 이달부터 인상

가정용 17%·일반용 23.4%·산업용 17.1% 등 평균 18.1% ↑

남원시 하수도요금이 9월1일부터 평균 18.1% 인상된다.

남원시는 현재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이 12.6%로 연간 14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성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요금인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시가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은 t당 평균 526원으로 하수처리 원가인 t당 4165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면서 최저 요금으로 하수도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적자 누적액 규모는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하수관 교체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사업 재정 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가정용 17%, 일반용 23.4%, 대중탕용 14.7%, 산업용 17.1% 등 평균 18.1%의 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1t의 수돗물 사용을 예로 할 경우 종전 월 1만1020원에서 1860원이 인상된 월 1만2880원을 내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을 마련했음에도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하지 못했지만 하수복지 개선과 쾌적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내장산 추령~유군치 1.6㎞ 구간 개방

순환형 탐방로 초입…오늘부터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가 추령길 탐방로 1.6㎞ 구간을 9월1일부터 신규 개방한다.

추령길(추령~유군치)은 장군봉,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 서래봉 등 내장산 8개 봉우리로 이어지는 순환형 탐방로 초입 구간이며, 추령에서 시작되는 순환형 전체 탐방로는 연장 12.2㎞, 탐방시간은 8시간이 소요된다.

사무소는 추령길 탐방로 개방 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탐방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탐방로 정비를 마치고 탐방객 안전시설을 구축했다.

박순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개방 전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객들은 산행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공공도서관서 책 읽고 공연도 보고

마술쇼 등 문화행사 풍성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북 남원에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남원시공공도서관에 따르면 시민들이 책 읽는 기쁨을 느끼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시립도서관에서는 ▲23일 신비한 마술 박물관 공연 ▲7일 크리스탈 문진 만들기 ▲14일 냅킨아트로 나만의 독서대 만들기가 진행되며 ▲그림책 원화전 ▲픽북 카드 이벤트 ▲2배로 도서 대출 ▲연체지우개(9월 한달)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도 ▲2일 어린이 애니메이션 상영 ▲8일 해님달님 인형극 ▲19일 마술로 들려주는 위인전 공연 ▲15일 패브릭아트로 장식용 빗자루 꾸미기를 비롯해 ▲세계의 명화를 주제로 하는 도서전시 ▲그림책 원화 전시와 뽑기이벤트 ▲연체탈출(9월 한달) 등의 이벤트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립도서관 또는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마음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찌우는 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